

# 택배 물량 폭증...과로 시달리는 배달원들의 ‘비명’

코로나에 추석까지...이중고 겪는 택배노동자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박재현(가명)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물류창고에 도착, 배달할 물량을 분류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3시간 30분이 걸려서야 창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신이 배달할 지역으로 갈 택배물량을 찾아내 1t 화물차에 실었다.

박씨는 “예년 같았으면 하루 평균 배달 물량이 250개에 불과했지만 최근 코로나로 ‘언택트’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350개까지 폭증했다”며 “추석이 다가오면 400~45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도 물량을 배달하려면 1시간에 평균 50건, 1분 1초당 한 개 꼴로 배달을 해야 오후 6시여나 일을 끝낼 수 있는 속도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추석 연휴 특별배송으로 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택배물량 대란’이 예상되면서 택배노동자들이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장시간 노동 문제의 핵심인 ‘분류작업’을 위한 인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5월 40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 소속 택배

분류작업만 3시간 넘게 걸려  
1분 1초당 한개 꼴 배달해야  
업체들 인원 확충은 나몰라라

일주일 평균 69시간 격무

“이러다 또 과로사 나올라”

노조, 분류작업 인력 충원 촉구

노조원들은 지난 4일 광주시 남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부터 택배 노동자의 고유업무인 집·배송 업무만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금껏 해왔던 택배 물량 분류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자칫 택배 배송이 애초보다 늦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측이 해야 할 분류업무를 관행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겨온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 단축은 힘들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는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최근 내놓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택배기사 5명이 쓰러지

기 전, 일주일 평균 노동 시간만 69시간에 달했다.

노조는 이같은 점을 들어 “택배 노동자들이 배달과 고객들의 반품 물량을 수거하는 역할만 한다면 굳이 새벽부터 나와 퇴근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이하는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 노조원들은 회사측이 해야 할 분류업무를 떠안으면서 새벽 7시부터 물류센터를 찾아 자신의 배달지역에 온 물량을 찾아 실는 작업을 하는데만 평균 5시간 넘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때문에 수백 개에 이르는 물량을 시간에 맞춰 배달하느라 식사시간과 화장실 가는 것을 줄여 배달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럼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집 밖을 나서지 않는 고객들이 경비실보다 집 앞까지 배달해줄 것을 선호하다보니 배달 시간은 더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까지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의 배달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업무량 폭등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조원들은 “추석 연휴때는 평소보다 15~20% 이상 물량이 늘었다”면서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 없이 코로나 여파로 30~



광주의 한 택배회사 물류창고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40% 물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추석 물량까지 겹치면 곳곳에서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하루평균 420개, 한달 간 1만

개가 넘는 택배를 나르던 40대 택배기사가 광주에서 과로로 숨을 거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택배 노조원들은 “회사측은 택배노동자

의 업무가 아닌 분류작업에 분류노동자를 추가 고용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 기아차 취업사기, 목사와 공모한 30대 영장 신청

피해자 대화방 447명 달하는데  
피해자 진술은 10명 안팎 불과  
실체 규명할 적극적 수사 필요

경찰이 기아자동차 취업사기 <광주일보 8월 25·26일 6면>과 관련,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들끼리 SNS상에 만든 단체 대화방 참여자만 447명에 이르면서 온갖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경찰에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피해자는 10명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체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아차에 정규직으로 채용업시켜주겠다고 구직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

(사기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광주지역 교회 B목사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기아자동차 공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이 확보한 피해 사례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평소 신뢰하던 동료 목사 등을 통해 B 목사를 소개받으면서 별다른 의

심없이 채용을 위해 거액을 건넸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B 목사를 통해 기아차 정직원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평소 알고 지낸 교회 목사 등에게 들어 믿을 수 밖에 믿었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말, 전남 동부지역 목사 30여 명이 모인 식사 자리에 B목사가 참석, 기아차 관련 인맥을 언급하면서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꺼냈고 목사들이 관련 내용을 주변에 전달하면서 소개해 피해자가 많아졌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결국 10만원 놓고...벌금 불복 vs 항소

불법 전매 알선 공인중개사 벌금1심 290만원→2심 300만원

광주지법 “죄질 불량”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한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피고인이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애초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받자 이번엔 검찰이 항소해 형량을 높였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원)는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의 공인중개사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290만원)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광주시 남구 호천1지구 모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금지기간 중에 알선해 수수료 명목으로 100

만원을 챙기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아 ‘너무 무겁다’며 불복, 재판에 이르게 됐다.

1심은 불법 전매 행위로 취득한 이득,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해 2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번엔 검찰이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경기 과열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A씨가 지난 2016년 5월,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벌금형량을 10만원 올린 벌금 300만원으로 정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2)씨와 친모 B(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해 4월,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C(당시 12세)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B씨

는 범행 전 항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은 뒤 음료수에 타서 친딸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A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C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B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 인생의 기둥“목, 허리” 회계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